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순래** · 이경상*** · 박철현****

국 | 문 | 요 | 약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예방대책들이 실증주의에 경도되었고 청소년의 주관적 사고작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에 관한 이론분석과 관련 경험적 연구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작용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했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자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에 있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들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의 비율은 10.7%이었다. 가장 많이 가담한 학교폭력은 심한 놀림과 조롱이었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왕따)과 심하게 때리기의 순이었다. 돈 혹은 물건을 뺏기와 훔치기는 1.5%와 0.7%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재물추구형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의 추구가 일반적 양상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황적 조건에 의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즉 부모애착 결여, 부정적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와 같은 열악한 상황적 경험으로 주위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보다는 즉각적 만족에 치중하고, 행위규범을 경시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런 사회적 인지틀로 인해 청소년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왜곡해 정의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 본 연구는 201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또한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며, 2012년도 대한범죄학회 · 경찰대학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 바 있음.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는 학생들이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현장체형 중심의 인성교육활동, 미래지향적 변화유인제(hook for change)에 기초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의 시행, 가해자의 사회재통합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의 운용 등을 제안했다.

❖ 주제어 : 학교폭력,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사회적 인지틀, 상황정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I. 서론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질적 문제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여전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라 발생수준은 다소 다르지만 전국의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72개교 9,174명을 표집해 학교폭력의 실태를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청소년폭력에 방재단, 2012) 2006년도에 학교폭력 가해율은 12.6%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1년도에 가해율은 15.7%로 조사되어 지난 5년 사이에 약 3% 증가하여 학생 100명당 16명 가량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적 노력이 있었다. 1995년 선배들의 괴롭힘과 구타로 고등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자 그해 12월에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문화체육부, 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보처 등 각 정부부처별로 다양한 대책¹⁾을 강구했다(박세정, 1998; 이순래, 2002: 83에서 재인용). 이후 2004년에 학교폭력대책법과 동시행령을 제정했고, 2005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정부부처가 합동으로 1차 5개년 계획²⁾을 마련하고 2005년

1) 1995년의 정부대책에 포함된 사항은 교육부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학교폭력추방대책 본부의 구성, 시·도 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추방대책반의 운영, 폭력피해 신고함 설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학생선도 및 피해상당 강화,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학교담당 검사제 도입, 학교 주변 취약지역 방범조소 증설, 유해환경정소 정화 및 단속, 우범학생 명단 통보,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 등이다(박세정, 1998; 이순래, 2002: 83에서 재인용).

부터 매년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줄이려는 계획을 시행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순래, 2005: 20에서 재인용). 2008년부터는 위 기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지원활동을 하는 위(Wee) 센터와 위(Wee) 클래스를 운영 하였고(최상근, 2011: 28), 2010년부터 시작된 2차 5개년 계획은 전국 학교의 90% 이상에 CCTV를 설치하고 70% 이상에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10). 이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국가적 노력이 수년동안 집중되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완화 되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대처노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이다. 국가적 대처노력의 방편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과 유해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인 성과 규범의식의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가해학생과 비행소년을 대상으로 선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적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상담서 비스를 제공했지만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견해일 것이다. 2012년에 발표한 ‘학교폭 력근절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12)이 대표적 사례이다. 2012년의 종합대책은³⁾

- 2)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5)은 1) 학교폭력 추진조직의 운영 활성화,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체계의 강화, 3)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의 강화, 4)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설정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순래, 2005: 20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5개년 계획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첨단 정보통신의 이용교육, 학부모대상 교육을 포함했고 특히 전문인력풀의 구성과 활용, 외부 상담전문가의 데이터베이스화와 알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청소년상담사의 양성, 학교별 상담실의 운영 내실화 등 상담지원활동을 강조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5; 이순래, 2005에서 재인용).
- 3) 2012년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국무총리실, 2012)은 1)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강화 2) 학교폭력은 결코 은폐되지 않고 신고하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3)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토대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4)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을 직접대책으로,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6)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 대책을 근본대책으로 설정했다(국무총리실, 2012).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지금까지 미진했던 대처활동을 보완하고 이의 내실화된 구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학교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이다(Vaughan & Roberts, 2007; Wikström & Treiber, 2007; Simons & Burt, 2011).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비행에 관한 일반적 시각은 실증주의이다. 외부적 상황조건과 내부적 심리특성에 의해 청소년비행이 유발된다는 시각으로, 이에 따라 기존대책들은 상황적 조건을 개선하고 심리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에 치중했다. 하지만 청소년은 피동적 객체가 아니다. 실증주의에서 가정하듯이 외부자극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다. 또한 태도와 인성과 같이 기왕에 조직된 내면적 요인들에⁴⁾ 의해 조정되는 존재도 아니다(Reynolds & Herman-Kinney, 2003: 42). 일상적인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정의(definition of situation)를 하며 이에 기반해 적절한 행위를 선택하는 주관적 사고작용을 하는 존재이다(Thomas, 1923: 41-49; 조지 리처, 2001: 281-295; 박철현, 2010: 44-48). 기존의 대책들에서 청소년의 주관적 사고과정은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두 번째 견해는 기존 대책들이 학교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주관적 사고과정의 중요성은 사실 오래전부터 지적되었다. 실증주의가 오늘날에 지배적이지만, 일찍이 Mead(1962)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제안하면서 인간행위는 주관적 사고과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후 Schutz(1967)와 Schur(1984)는 문

- 4) 태도와 인성을 심리학적 연구에서 강조하지만 이를 통해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반사회적 태도와 인성이 비행의 유발원인이라면, 일상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표출될 것이므로 현재의 수준보다 월등히 많이 비행을 저질러야 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반사회적 태도와 인성을 가졌더라도 일부의 사람에 대해 일정한 상황에서만 문제행동을 저지르고 그 외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한다(Taylor et al., 1973). Vaughan과 Roberts(2007)는 현재의 태도와 인성보다 미래기반의 자의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Vaughan과 Roberts는 미래상황에 대한 판단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희망적 반응자(hopeful reactors), 열정적 연마자(passion honers), 확신적 탐색자(confident explorers), 불안한 추구자(anxious seekers)로 구분했다. 이 중에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방법으로 미래의 모습을 변화시키려는 확신적 탐색자(confident explorers)와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대안적 목표를 수립할 능력이 없는 불안한 추구자(anxious seekers)가 현재의 태도와 인성과 무관하게 비행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Vaughan & Roberts, 2007).

화에 존재하는 전형적 지식들(typifications)과 인지틀(cognitive scheme) 등 주관적 사고과정에 작용하는 핵심요소들을 규명했다. 최근에 Simons와 Burt(2011)는 초기 논의를 발전시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로 인해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사회관계에 대한 적대적 시각, 미래를 폄하하는 시각, 행위규범에 대한 냉소적 시각의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s)로 구성되며 이런 지식구조의 청소년은 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비행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학생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밝혀 우리나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Simons와 Burt의 논의를 중심으로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다. 이후 연구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를 사용했으며 연구에 활용한 조사대상자는 1차년도 2,351명, 2차년도 2,280명이다.

II. 이론적 배경

동일한 대상이라도 이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해석은 같지 않다. 선생님의 훈계를 자신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애정표현으로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 학생은 상투적 잔소리 혹은 자기를 미워하는 징표로 생각한다. 친구와 눈이 마주 쳤을 때에 대다수는 그냥 지나치지만 일부는 도발적 징후로 해석하고 ‘왜 짜려’하며 적대적 반응을 표출한다. 친구에 대한 심한 조롱이나 왕따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일부는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선배들의 구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자기 학교만의 소중한 전통으로 해석하는 학생도 있다.

이런 사례들은 학생들의 행위가 외부영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주

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각자의 주관적 사고과정에 따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들⁵⁾에서 주관적 사고과정은 대부분 간과하였다. 반면에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주관적 사고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사람들을 인간행위자(human agency, Bandura, 2006) 즉 독자적 사고능력이 있는 존재로 가정하며, 언어와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고 주관적 해석결과에 따라 행위를 선택한다는 이론이다. 1960년대에 Lemert(1967), Becker(1963) 등의 낙인이론가들이 범죄학 연구분야에 소개했으며, 최근에 다시 부흥하여⁶⁾ 여러 학자들이 주관적 사고작용을 중심으로 비행과 범죄현상을 연구하고 있다(Giordano et al., 2002; Vaughan & Roberts, 2007; Wikström & Svensson, 2010; Simons & Burt, 2011). 다음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이를 토대로 한 관련연구들을 검토한다⁷⁾.

1.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사회학 연구에서 대표적 토대이론의 하나이다. Mead(1962)가 이론개발을 주도했으며, 그는 주관적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행위의 유발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

- 5) 기존 이론들은 대부분 외부적·내부적 영향요인에 의해 학교폭력이나 비행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예컨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은 사회유대를 외부적 영향요인으로, 자아통제이론(Gottfredson & Hirschi, 1990)은 자아통제력을 내부적 영향요인으로 고려하고 이들 영향요인들이 비행발생을 결정한다는 실증주의 시각이다.
- 6)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산업화 초기에는 실증주의가 범죄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초기단계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이 대량생산, 성장과 발전, 근면, 감정생활의 억제 등의 공유가치를 중심으로 동질적 사고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주관적 사고과정이 사회구성원간에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의 차이를 통해 범죄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대다수가 합의하는 공유가치를 찾기 힘들고 다양한 가치지향과 이질적 취향들이 공존하고 있다(이순래, 2008: 5-10).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시대처럼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사고과정이 유사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은 주위자극들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 7) 이론적 배경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이경상·이순래·박철현,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다(Blumer, 1969; Johnson, 1981). 첫째, 행위자들이 주위대상에 부여하는 의미를 강조한다.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반해 사람들은 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⁸⁾(Blumer, 1969; Johnson, 1981). 의미의 근원에 대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그것이 주위대상에 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체벌을 예로 들어보자. 얼마 전까지 체벌은 교사가 선택할 수 있었던 훈육행위였다. 당시에 체벌은 학생지도라는 목적(purpose)에 유효한(significance) 행위라는 의미가 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체벌이 허용되지 않는다. 목적달성에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체벌의 새로운 의미이다. 이를 통해 의미란 주위대상(체벌) 자체에 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위대상의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다(Mead, 1962; Blumer, 1969; Johnson, 1981). 태어날 때부터 주위대상들의 의미를 알고 출생하는 사람은 없다. 의미획득과 관련해 Mead는 자신의 직접경험만으로 주위대상들의 의미를 획득할 수 없다고 보았다(Mead, 1962: 135).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위대상 혹은 주위대상을 지칭하는 상징들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의미는 실제 생활과정에서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Mead, 1962; Blumer, 1969; Johnson, 1981). 상호작용에 의해 획득한 의미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주위대상과 상황을 정의하고, 가능한 행동방식의 윤곽을 시연하고, 대안적 행위가 낳을 결과를 상상하고, 가장 적합한 행위를 선택한다. 그렇더라도 기존에 획득한 의미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부대화(inner conversation)를 통해 언제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Griffin, 2006: 62).

Mead는 자아(self)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상술했다(Mead, 1962: 135-225). 자아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 주요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Mead는 유아기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익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보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발달한다고 보았다(박철현, 2010: 45). 이런 점에서 자아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아상(self-image)과 다르며 개인의 정신 능력 수준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지사지(易地思之)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경우에 자아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지

8) 상징(symbol)은 의미가 부여된 주위대상 즉 의미있는 몸짓, 언어, 물체, 사건, 개인, 집단, 사회적 가공물이다. 이런 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이란 사람들이 의미를 중심으로 상대방에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Mead, 1962; Blumer, 1969; Johnson, 1981).

리처(2001: 292)는 자아를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 아니고, 성찰력(reflexiveness), 남에게 반응하듯 자신의 자아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남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과 이 깨달음에 근거해서 다음 순간에 해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자아의 발달에 있어 Mead가 강조한 사항은 사회적 경험(social experience)이다(Mead, 1962: 144).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볼 수 있는 경험이 쌓임으로써 자아가 발달한다는 것이다. 자아발달은 일반적으로 세 단계를 걸쳐 진행되는데(박철현, 2010: 45), 첫째는 준비단계(preparatory stage)로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단순히 흉내내고 모방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놀이 단계(play stage)인데 소꿉놀이에서와 같이 엄마, 아빠, 의사, 경찰의 시늉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배양된다(박철현, 2010: 45). 하지만 이 단계의 자아능력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이다. 몇 가지 별개의 역할만을 취득하므로 주위대상에 대해 분절화된 의미를 가지며 자신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통합된 인식을 갖지 못한다. 세 번째는 게임단계(game stage)로 사회적 경험이 더욱 축적되어 주위대상이나 자신에 일반화된 견해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단계이다(박철현, 2010: 46). 이 단계에 이르면 주위대상을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의 시각에서 인식할 수 있고 자아인식도 일관성이 있고 통합성을 갖게 된다.

Mead(1962:175)는 자아를 ‘I’와 ‘me’로 구분하고, 이들의 내부대화를 통해 주위대상에 관해 새로운 의미⁹⁾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me’는 주위대상들에 대한 견해가 조직화된 부분으로서의 자아이며 ‘I’는 생물학적 개인(biological individual)으로서의 자아이다. 즉 ‘me’는 사회화된 부분으로 주위대상과 자신에 대한 일반화된 의미가 내면화되어 형성된 자아이다. 반면에 ‘I’는 사회화되지 않은 부분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주위대상에 즉각적 반응을 하는 개인화된 존재로서의 자아이다. 주위대상을 접했을 때에 ‘I’는 ‘me’를 불러내고 이에 반응하며 그 결과에 따라 거꾸로 그것을 변화시킨다고 지적하여(Mead, 1962: 196) 사회화된 자아

9) Mead는 주위대상에 대한 의미가 집단으로부터 얻어지지만 개인은 그것을 결코 없었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주장한다(Mead, 1962: 198).

와 그렇지 않은 자아와의 내부대화를 통해 사람들은 주위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Mead가 인간행위에서 의미의 중요성을 파악했다면 Schutz는 의미의 구성방식과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이론발전에 기여했다. 현상학자인 Schutz는 주위세계(Umwelt)와 공유세계(Midwelt)의 조화·갈등·조정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조지 리처, 2001: 350-351). Schutz(1967)에 의하면, 사람들은 생활세계(life world)라는 당연시되는 사회생활을 기반으로 행위하며 이런 세계에는 주위세계와 공유세계가 있다. 주위세계는 실제로 겪는 직접적 경험의 영역이며, 공유된 세계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전형적(typical) 지식 혹은 간접적 경험의 영역이다.¹⁰⁾ 사람들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공유세계의 다양한 행동지침, 문제해결책, 사회세계의 해석 등을 제공받는다. 그렇지만 공유세계가 제공하는 문화적 틀/framework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겪는 주변세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공유세계에 의하면 공무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무원은 그렇지 않고 권위적일 수 있다. 공유세계와 주변세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Schutz는 사람들이 공유세계의 문화적 틀로 의미를 구성하지만 그것이 주변세계와 일치하지 않으면 공유세계의 틀을 조화·갈등·조정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미는 개체로서의 자아의 개인적 경험 위에서 구성된다는 것이다(Schutz, 1967: 13).

Schutz는 의미에 내포되는 내용이 전형화(typifications) 즉 전체로서의 문화에 존재하는 행위에 대한 처방적 지식(knowledge of recipes)이라고 보았다(조지 리처, 2001: 348). 주위대상과 관련한 문화적 일반유형들이, 예컨대 행동하도록 해주는 규칙, 처방, 적합한 행동의 관념 및 기타 정보 등이 의미에 포함되는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Schutz가 주장하는 주관적 사고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조지 리처, 2001: 350-351).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주위대상에 대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전형화를 배운다. 그리고 전형적 상황이라고 배운 상황에서

10) 주위세계란 Mead가 자아의 구성요소로 분류한 'I'와 'me' 중에서, 창의적이고 사회화가 되지 않은 'I'가 경험하는 영역이며, 'me'가 의식하는 영역은 공유세계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Mead, 1962).

전형화를 적용하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 사용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문화적 일반유형들이 일상생활에서 수용되지 않거나 비효율적일 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기존의 문화유형을 포기하고 특수한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 새로운 전형화를 구성한다(조지 리처, 2001: 350-351).

이후 여러 학자들이 전형화(typifications)에 주목했다(Sudnow, 1965; Scheff, 1966; Cicourel, 1968; Emerson, 1969; Schur, 1984). 그 중에서 Schur(1984: 33)는 전형화가 개인의 주관적 사고과정에 반영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문화적 일반유형들이 어떻게 개인에 전달되어 사람들이 특정대상에 대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Schur는 인지틀(cognitive scheme)이 연계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지틀을 '사전인지된 유형들의 틀(a scheme of preconceived types)'이라고(Schur, 1984: 32) 정의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운 문화적 일반유형들로 인지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은 특정대상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Schur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인지틀과 성차별적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는 우선 미국에서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여자에 대한 일반유형들을 정리했다. Schur가 파악한 문화적 일반유형들은 1) 여자들은 모두 “여자”로서 취급받기를 원한다, 2) 여자들은 모두 같아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여자들은 스스로 수동적이길 원한다, 4) 여자한테는 차별, 희롱, 폭력을 쉽게 할 수 있다, 5) 여자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 6) 여자의 사회적 지위와 행동방식은 남자에 부수되는 것이다 등이었다(Schur, 1984: 33). 이후의 분석에서 Schur는 문화적 일반유형들을 수용하는 수준에 따라 개인의 인지틀이 다르고, 특히 이런 유형들을 많이 수용한 인지틀을 가졌을 때에 그만큼 더 여자에 성차별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¹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Schur, 1984: 91).

지금까지 Mead, Blumer, Schutz, Schur를 중심으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검

11) 이러한 결과는 전형화(typification)가 결과적 측면과 과정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과적 측면의 전형화는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 유형들이다. Schur가 분류한 여자에 대한 6가지의 유형을 결과적 측면의 전형화로 이해할 수 있다. 과정적 측면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일반적 유형들이 개인의 인지틀(cognitive scheme)에 반영되고 주위대상을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해석하는 형태이다.

토했다. 검토한 내용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람은 사고능력이 있고 주관적 사고과정을 통해 행위를 선택한다. 둘째, 사람들은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반해 적절한 행위를 선택한다. 셋째, 사람들의 사고능력과 주위대상에 대한 의미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한다. 넷째, 주위대상의 의미는 실제 생활과정에서 변경되고 수정될 수 있다¹²⁾. 다섯째, 사고하고 성찰하는 자아의 능력은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다른 사람들의 역할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자신을 보는 경험들이 쌓임으로써 성찰적 자아능력이 발달한다¹³⁾. 여섯째, 사람들이 주위대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는 인지들을 통해서이다. 인지들은 전체로서의 문화에 존재하는 일반적 유형들에¹⁴⁾ 영향을 받으며 사람들은 이를 통해 주위대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위를 선택한다.

2. 주관적 사고과정과 범죄

최근에 들어 여러 학자들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기반으로 비행과 범죄현상을 분석했다. 다음에서는 주관적 사고과정과 범죄와의 관계를 분석한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본다.

1) Kroneberg 등의 틀선택 모형

Kroneberg 등(2010)은 기존연구들에서 주관적 사고과정에 관한 관심부족을 비판하면서(Kroneberg et al., 2010: 554) 틀선택 모형(model of frame selection)을

- 12) Mead는 'I'와 'me'의 관계를 통해, Schutz는 당면시되는 공유세계와 주위세계의 불일치를 조화·갈등·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수정한다고 보았다.
- 13)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자아의 성찰적 능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런 능력은 사회적 경험이 축적되어 발달한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주입식 도덕수업이 아니라 사람들과 만남을 많이 하는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개인들이 특정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들은 사회전체의 전형화(typification)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낯선 사람(others)에 대한 사회전체의 전형화가 위험한 사람, 두려운 사람, 손해를 입히는 사람, 강간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 등이면 개인의 인지들도 이렇게 형성되고 따라서 '낯선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상점절도와 탈세범죄를 설명하는데 적용했다.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은 범죄행위를 행위자의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상황에서 범죄로 인한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은 범죄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Kroneberg 등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의문을 가졌다. 범죄이익이 큰 상황에서도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에 자동차 키가 꽂혀 있어도 그냥 지나칠 뿐 차량절도를 저지르지 않으며, 외진 도로에서 혼자 산책하는 여성을 만나도 대부분이 강도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왜 이런 불일치가 발생할까?

Kroneberg 등은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Kroneberg et al., 2010). 사회규범을 강하게 내면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의미부여의 틀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범죄이익이나 손실을 의미부여의 틀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고, 후자의 경우에는 고려하므로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틀선택 모형을 제안했다. 독일에서 2,130명을 대상으로 상점절도와 탈세범죄에 대한 의향(willingness)을 조사했을 때에 연구결과는 이들의 연구모형과 일치했다(Kroneberg et al., 2010: 260). 규범수준이 높은 사람은 범죄를 행위대안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익과 비용 자체를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에 규범수준이 낮은 사람은 기대하는 이익이 클수록 상점절도를 저지르겠다는 의향이 증가했고, 체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범죄의향이 감소했다.

2) Wikström의 상황적 행위이론

Wikström 등(2007; 2010)은 상황적 행위이론(situational action theory)을 제안하며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이 범행동기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상황적 행위이론은 범죄에 이르는 주관적 사고과정을 범행동기의 형성, 행위대안의 지각, 행위선택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개인적 특성요인¹⁵⁾과

15) 상황적 행위이론에서 개인적 특성요인은 유전적(genetic), 획득적(acquired), 경험적(experienced) 측면을 반영하며 욕망/전념(desire/commitments),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 도덕적 범주(moral categories), 수행능력(executive capabilities)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도덕적 범주는 개인

상황적 조건요인¹⁶⁾이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이론이다. 상황적 행위이론에 의하면 범행동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유혹(temptation)이다(Wikström et al., 2007; 2010). 이런 범행동기는 개인이 특정한 욕망/전념을 가지고 있고 상황적 조건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일 때에 생겨난다. 좋은 성적에 대한 욕망이 있는 학생이 시험감독관이 자리를 비울 때에 컨닝의 유혹을 느끼는 경우이다. 다른 유형은 도발(provocation)이다(Wikström et al., 2007; 2010). 도발적 범행동기는 상황에 서의 장애나 마찰(friction)이 개인의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과 결부될 때에 생겨난다. 실직과 같은 상황적 장애(friction)가 있을 때에 주위사람을 나쁘게 보는 사회적 인지틀이 결부되어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원수를 갚겠다’ 등의 동기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범행동기가 생겼더라도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상황적 행위이론은 개인의 도덕적 범주와 수행능력(executive capabilities), 상황의 도덕규칙과 친숙도에 따라 행위대안의 지각과 행위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따라서 실제 범죄행위로의 이행여부는 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Wikström 등(2010)은 영국에서 1,95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황적 행위이론을 검증했다. 연구결과는 상황적 행위이론을 지지했다. 자아통제력(Gottfredson & Hirschi, 1990)은 그간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자아통제력을 포함시킨 분석에서 도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는 매우 강했으며($\beta=.378$) 이는 자아통제력과 비행과의 관계($\beta=.20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도덕의식이 높은 청소년은 범죄를 행위대안으로 지각하지 않았고 범죄를 실행하는 수준도 낮았다.

의 도덕의식, 도덕습관으로 측정하며 수행능력은 선택적 주의, 예견, 목표형성, 자아감시(self-monitoring), 추상적 사고능력 등을 포함한다(Wikström et al., 2007; 2010)

- 16) 상황적 조건요인은 주위사물(objects), 다른 사람(persons), 사건(events) 등의 측면을 반영하며 기회, 장애나 마찰(friction), 도덕적 맥락(moral context), 친숙성(familiarity) 등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도덕적 맥락이란 상황에서 요구하는 도덕규칙, 위반에 대한 감시와 제재 등을 포함한다(Wikström et al., 2007; 2010).

3) Simons와 Burt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Wikström 등(2007; 2010)이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을 그리고 Kroneberg 등(2010)이 의미를 부여하는 틀(frame)을 범죄학 연구에 소개했지만 그것의 유형이나 형성배경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범죄유발적 사고과정을 가장 상세히 논의한 학자들은 Simons와 Burt(2011)이다.

Simons와 Burt는 일탈청소년이 비행에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했다. 대다수가 나쁘다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Simons & Burt, 2011: 554). 오히려 비행이 정당한 것이고, 어쩔 수 없었고, 필연적이었고, 허용될 수 있고, 더 나쁜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었고, 심지어 정의실현을 위한 도덕적 의무로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그렇다면 왜 비행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까? 왜 비행을 옹호하고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할까? Simons와 Burt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criminogenic knowledge stucture) 때문이라고 보았다.

Simons와 Burt(2011)에 의하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세 가지의 사회적 인지틀(social schemas)로 구성된다.¹⁸⁾ 사회적 인지틀의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를 예시했다: 1) 사회적 인지틀은 행위자의 과거경험과 미래행위를 연계한다. 2) 과거에 경험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내재했던 유형들이 내면화된 표상(internalized representations)이며 미래에 경험할 사회적 징후들을 처리하는데 지침이 된다. 3) 상황을 인지하고 행위의 방향을 선택할 때에 암묵적으로 참조되는 추상적 원칙이며 지향이다. 4) 주요 관심사(cues), 외부자극의 의미, 행위대안들의 예측결과를 지시하여 다양한 외부자극을 단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5) 반복된 상호작용에 내재된 유형이 내면화된 것으로 대체로 쉽게 수정이 되지 않는다. 6) 새로운 상황으로 이전을 할 수 있어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다. 7) 유사한 생활환경에 속한 사람

17) Skyes와 Matza도 비행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현상을 지적했다. 비행의 부정적 의미를 희석하는 기제를 Skyes와 Matza는 합리화 혹은 중화(neutralization)라고 지칭하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충성심에 대한 호소(appeal to higher authorities)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박상기 등, 2011; 180-181).

18)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Simons와 Burt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잠재변인(latent construct)으로 3가지의 사회적 인지틀을 관찰변인(observed variables)으로 설정했다.

은 유사한 사회적 인지들을 갖는 경향이다(Simons & Burt, 2011: 555-556). 하지만 Simons와 Burt는 사회적 인지들의 개념적 성격을 함축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했다. 앞서 검토했던 Mead, Blumer, Schutz, Schur의 논의들을 참조하면, 사회적 인지들은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전형적 유형들을 개인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학습한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주위대상과 상황에 전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행동방향을 모색하는데 지침이 되는 추상적 원칙이나 지향(abstract principles and dispositions, Bourdieu, 1990: Meisenhelder, 2006)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은 비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인지들로 사회관계에 대한 적대적 시각(hostile view of relationships), 미래를 폄하하는 시각(discounting view of future), 행위규범에 대한 냉소적 시각(cynical view of conventional norms) 등을 제시했다(Simons & Burt, 2011).

(1) 적대적 시각(hostile view of relationships)

적대적 시각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른 사람들에 적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지들이다(Simons & Burt, 2011). 이런 시각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을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 사고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Simons & Burt, 2011: 557): a) 주위사람들이 공평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b) 주위사람들이 항상 기만적이고 착취하려고 하므로 강압적 수단으로 자신을 이익을 지켜야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 무시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고 무시될 때는 공격적 반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 묵인과 관용은 자신의 취약성을 보이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 주위사람들이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주위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 때에 공감(emphathy)과 동정심(sympathy)이 생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공감능력이나 감정이입 능력이 부족하다. f)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들을 해석할 때에 공격성, 위협성, 착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황정의를 한다. g) 주위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Simons & Burt, 2011: 557).

적대적 시각이 형성되는 배경으로 Simons와 Burt는 부모훈육, 차별대우, 지역환경 등 열악한 상황적 조건을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적했다(Simons & Burt, 2011). 그 중에서 부모훈육의 방식이 강압적이고 냉담하면 자녀의 사회적 인지들은 적대적일 수 있고, 또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많았을 때도 적대적 시각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웃통합의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비행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고, 지역의 잦은 범죄사건에 수반되는 사기와 배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상호부조하며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경험할 기회가 적다. 이런 점에서 Simons와 Burt는 이웃통합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적대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2) 미래편하 시각(discounting view of future)

미래편하 시각은 주위대상을 미래기반적(future based)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 혹은 현재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지들이다(Simons & Burt, 2011). 이런 시각의 청소년은 즉각적 만족에 치중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장기적 보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다. 이런 시각의 청소년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은 다음과 같다(Simons & Burt, 2011: 559): a) 장기적 보상을 얻는데 자신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b) 사회질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c) 미래의 상태는 노력이 아니라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d) 위험한 행위(risky behavior)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Simons & Burt, 2011: 559).

미래편하 시각의 형성에 대해 Simons와 Burt는 환경적 맥락, 생활경험, 다른 사회적 인지들의 영향을 강조했다(Simons & Burt, 2011). 사회적 환경이 공평하고 상호호혜적이면 단기적으로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미래에는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환경적 맥락이 그렇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미래보다는 목전의 이익에 치중하는 미래편하 시각으로 주위대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생활경험의 경우는 예측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 역시 미래편하 시각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인지들이 적대적이면 미래편하 시각을 가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았다. 적대적 시각의 청소년은 주위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익

을 취하려 하고, 공감능력이 부족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3) 냉소적 시각(cynical view of conventional norms)

냉소적 시각은 행위규범에 신뢰와 믿음을 부여하지 않는 사회적 인지틀이다(Simons & Burt, 2011). 이런 시각의 청소년은 사회규범들을 경시하고 규범준수를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다. 냉소적 시각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부모애착, 집합효율성, 다른 사회적 인지틀 등이 지적되었다(Simons & Burt, 2011: 560). 부모훈육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과 사회학습이론(Akers, 1998)에서도 사회규범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한다. 기존이론들과 유사하게 Simons와 Burt도 부모훈육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방식이면 사회규범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모위주의 일방적 훈육(non-supportive parenting)이면 냉소적 시각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집합효율성의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사회규범들의 정당성(legitimacy)과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냉소적 시각을 갖는다고 보았다. 예컨대 사회규칙과 법률을 임기응변식으로 양산만 하고 실제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청소년들은 이런 규범들을 냉소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냉소적 시각은 다른 사회적 인지틀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만일 청소년이 주위사람들을 신뢰하고 배려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장기적 보상을 추구하면, 이런 청소년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규범들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위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당면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경우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Simons와 Burt는 적대적 시각과 미래편하 시각을 갖는 청소년이 냉소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Simons와 Burt는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사고작용을 상세히 논의했다. 청소년이 비행에 빠져드는데 있어 이들이 핵심요인으로 고려한 사항은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이다. 일상생활의 열악한 상황적 조건으로 인해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 등의 사회적 인지틀이 형성되고 이런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로 인해 해당 청소년은 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함

으로써 비행에 쉽게 빠져든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적 인지들이 형성되는 배경과 이같은 사회적 인지들을 가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구체적 양상까지 기술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사고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3. 연구문제

문헌검토를 통해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세 가지이다. 연구문제 1은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이다. Mead, Schutz, Schur, Simons와 Burt 모두가 주위대상에 관한 의미를 형성하는 사회적 인지들이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비행친구, 이웃통합 결여 등의 상황적 조건을 겪는 학생들이 과연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갖는 수준이 높은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2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관련문헌들은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왜곡된 상황정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Simons와 Burt는 왜곡된 상황정의의 원인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지적했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형성된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 등의 사회적 인지들로 인해 비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잘못 정의함으로써 비행에 빠져든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갖는 학생들이 과연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정도가 높은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3은 상황적 조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다. 성별, 가족구조, 가구소득과 같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과연 상황적 조건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형성된 지식구조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게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세 가지 패널 자료(초1 패널, 초4 패널, 중1 패널) 중에서 중1 패널 1~2차년도 자료이다.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패널 조사는 2009년 4월 기준 2009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으로 표집한 전국의 중1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1일~11월 30일 사이에 1차 조사를 수행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그 결과 중1 패널 1차년도 조사의 원표본 성공률은 73.1%, 원표본 대체율은 26.9%이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조사와 청소년 조사가 모두 성공한 조사 성공률은 87.0%로 최종 2,351명이 1차년도 표본으로 확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패널 조사의 2차년도 추적조사는 2011년 9월 26일~11월 30일 사이에 실시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그 결과 조사대상 패널수(2,351명)대비 청소년 조사성공 비율은 97.0%로 나타났고,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조사성공한 비율은 93.5%이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자료분석의 대상자는 1차년도 자료의 경우는 2,351명이었으며 2차년도 자료에서는 3.0%(70명)가 탈락한 2,281명이다. 독립변인들은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측정했고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은 시간적으로 후행하는 2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측정함으로써 독립변인들의 인과적 영향을 반영했다.

2. 주요 개념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은 2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심한 놀림과 조롱(‘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왕따)(‘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이나 왕따시키기’), 패싸움(‘패싸움’), 심하게 때리기(‘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협박(‘다른 사람 협박하기’), 돈·물건 빼기(‘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빼기

(뽕뜰기)'), 돈·물건 훔치기('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 7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지난 1년 동안에 행한 회수를 표준화하고 표준회수를 '0'에서 '100'으로 환산해 척도를 구성했다. 단순합산할 경우에 정미한 학교폭력의 발생 횟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중한 학교폭력의 발생횟수가 많지 않아 학교폭력의 수준을 적절히 측정할 수 없다. 예컨대, 집단따돌림(왕따)은 최대 횟수가 64회였고 심하게 때리기는 50회로 조사되어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항목별 분포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표준화를 통해 분포차이를 고려했으며 표준화된 합산점수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어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 척도의 단위를 '0'에서 '100'으로 환산했다. '0'은 학교폭력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학생이며, '100'점은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른 경우이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이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의 세가지 차원에서 측정했다. 적대적 시각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을 냉혹하고, 믿을 수 없고, 공격적이고, 의심스럽다는 등과 같이 적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지틀이다(Simons & Burt, 2011). 적대적 시각은 '우리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역코딩), '나는 내 친구를 믿는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경계한다'(역코딩),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학교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등 8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65). 각 항목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③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는 리커트식 4점 척도로 부호화했다. 항목들의 합산점수로 측정했으며 합산점수가 많을수록 주위사람들에 적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틀을 강하게 형성한 경우이다.

미래편하 시각은 주위대상을 미래에 기반하지 않고 단기적 혹은 현재적 관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인지틀이다(Simons & Burt, 2011). 미래편하 시각은 '나는 학교생활이 내가 성장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 공부는 내가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내가 살아가

는 데 유용할 것이다’, ‘학교생활은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5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87). 리커트식 4점 척도와 합산점수로 측정했으며, 합산점수가 많을수록 단기적 관점에서 주위대상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들을 강하게 형성한 경우이다.

냉소적 시각은 행위규범을 경시하고 규범준수에 믿음을 갖지 않는 사회적 인지들이다(Simons & Burt, 2011). 냉소적 시각은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돕기 위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물자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휴일에 쉬지 못하더라도 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등의 4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73). 앞서와 같이 리커트식 4점 척도와 합산점수로 측정했으며, 합산점수가 많을수록 행위규범을 경시하고 규범준수를 도덕적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 인지들을 강하게 형성한 경우이다.

독립변인 즉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조건으로는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 비행친구 등을 고려했다. 부모애착 결여는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돌아올 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신다’ 등 4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78). 부적절 부모양육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시고 어떤 때는 안 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부모님(보호자)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게 대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신다’ 등의 6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72). 학교애착 결여는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학교숙제를 빠뜨리지 않고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한다’,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등의 5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67). 이웃 통합 결여는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나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등 3개 항목으로 반영했다(Cronbach Alpha=.77). 변인들은 모두 리커트식 4점 척도와 합산점수로 측정했으며, 합산점수가 많을수록 상황적 조건이 열악한 경우이다. 비행친구¹⁹⁾는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이나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뺑 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13개 항목에 대한 비행횟수를 표준화하고 표준합산점수를 ‘0’에서 ‘7’까지 8단계로 환산해 측정했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가족구조, 보호자 교육수준, 가구소득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설정했다. 성별의 경우는 남학생이면 ‘1’로, 여학생은 ‘0’으로 구분했다. 가족구조는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중심으로 양친가족(‘0’)과 해체가족(‘1’)로 구분했고, 보호자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졸의 5단계로 구분하고 중졸 이하 ‘1’에서부터 대학원 졸은 ‘5’ 까지로 부호화했다. 가구소득은 연소득을 1,500만원 미만 ‘1’에서부터 7,500만원 이상 ‘9’까지로 부호화했다.

IV. 분석결과

연구문제들을 분석하기에 앞서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의 남녀별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조사대상자 2,351명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은 각각 1,176명(50.0%)과 1,175명(50.0%)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²⁰⁾. 가족구조의 경우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양친가

19) 상황적 조건들은 대부분 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1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측정했으며 비행친구에 대한 항목들은 1차년도에 수집되지 않아 2차년도 자료를 대상으로 측정했다.

20) 2차년 자료의 경우에 남학생은 1,152명이고 여학생은 1,129명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23명 많지만 전체적 분포에서는 50.5%와 49.5%로 별 차이가 없었다.

족의 비율이 86.2%이며 반면에 부모 중에 한 편이라도 없는 비율은 약 13.8%이다. 보호자의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의 비율이 38.7%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이상의 비율은 약 40.0%이다²¹⁾. 조사표본이 모집단의 분포를 적절히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은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 연평균이 4,364만원이다. 2010년 우리나라 전체의 2010년 전가구 명목소득이 약 4,356만원²²⁾인데 이를 통해 조사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 2>는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교폭력의 가해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지난 1년간에 한번이라도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24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10.7%를 차지한다. 유형별로 가장 많은 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은 심한 놀림과 조롱이다. 이런 유형을 저지른 학생은 모두 142명으로 전체의 6.2%이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따돌림(왕따)과 심하게 때리기이다. 이런 유형을 저지른 학생은 전체의 3.1% 가량이다. 이에 반해 돈·물건을 뺏기와 흠치기를 한 학생은 각각 전체 학생의 1.5%와 0.7%에 불과해 집단따돌림(왕따)와 심하게 때리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은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려는 재물추구정보다 집단따돌림이나 때리기와 같이 심리적 만족감의 추구가 주요 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1)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

22) http://kosis.kr/learning/learning_003014.jsp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범주	1차년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1176	50,0
	여자	1175	50,0
	합계	2351	100,0
가족구조	양친가족	2028	86,2
	해체가족	324	13,8
	합계	2351	100,0
보호자 교육수준	중졸 이하	100	4,3
	고졸	1046	44,5
	전문대 졸	294	12,5
	대졸	770	32,7
	대학원 졸	141	6,0
	합계	2351	100,0
가구소득 (단위 만원)	1,500 미만	219	9,3
	1,500-2,100	250	10,6
	2,100-3,000	163	6,9
	3,000-3,500	265	11,3
	3,500-4,364	383	16,3
	4,364-5,000	208	8,9
	5,000-6,000	326	13,9
	6,000-7,500	294	12,5
	7,500 이상	243	10,3
	합계	2351	100,0

〈표 2〉 학교폭력 가해실태

학교폭력 유형	학생수	구성비
심한 놀림과 조롱	142	6,2
집단따돌림(왕따)	71	3,1
패싸움	17	0,8
심하게 때리기	70	3,1
협박	23	1,0
돈·물건 뺏기	35	1,5
돈·물건 훔치기	15	0,7
학교폭력 학생수	244	10,7 ¹
전체 학생수	2281	100,0

주1: 1유형 이상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의 구성비.

연구문제 1은 상황적 조건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표 3>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상황적 조건을 평균과 표준편차를 중심으로 저, 중, 고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평균차이를 일원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한 결과이다. <표 3>과 같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상황적 조건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내면화하는 비율이 높다. 구체적으로, 부모애착 결여의 경우에 적대적 시각의 집단별 평균은 14.5(저), 16.4(중), 18.0(고)으로 애착결여가 심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 미래편하 시각도 집단별 평균이 8.5(저), 9.8(중), 10.8(고)로 애착결여가 심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 냉소적 시각도 마찬가지로 집단별 평균은 8.1(저), 8.9(중), 9.7(고)로 애착결여가 심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 평균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따라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낮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나쁘지 않다고 인지하고 주위상황을 왜곡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내면화하는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분포(상황적 조건)

변인	범주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	
		평균	검증치	평균	검증치	평균	검증치
부모애착 결여	저	14,5	F=211,9 P<.01	8,5	F=99,8 P<.01	8,1	F=73,5 P<.01
	중	16,4		9,8		8,9	
	고	18,0		10,8		9,7	
부적절 부모양육	저	15,2	F=62,6 P<.01	9,6	F=2,4 n.s.	8,8	F=2,6 n.s.
	중	16,8		9,9		9,0	
	고	17,1		9,7		8,8	
학교애착 결여	저	14,3	F=294,8 P<.01	8,1	F=243,8 P<.01	7,9	F=138,1 P<.01
	중	16,8		9,9		9,1	
	고	18,3		11,7		10,1	
비행친구	저	16,3	F=3,7 P<.05	9,7	F=1,9 n.s.	8,9	F=3,4 P<.05
	중	16,8		9,9		9,3	
	고	16,6		10,0		9,0	
이웃통합 결여	저	15,5	F=150,3 P<.01	8,7	F=55,6 P<.01	7,7	F=119,5 P<.01
	중	16,8		9,9		9,1	
	고	17,6		10,6		9,8	

학교애착 결여와 이웃통합 결여의 분석결과도 이와 유사하다. 학교애착 결여의 경우에 집단별 평균은 적대적 시각에서 14.3(저), 16.8(중), 18.3(고), 미래편하 시각에서는 8.1(저), 9.9(중), 11.7(고), 냉소적 시각에서는 7.9(저), 9.1(중), 10.1(고) 등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애착결여가 심한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 이웃통합 결여의 경우도 적대적 시각은 15.5(저), 16.8(중), 17.6(고) 미래편하 시각은 8.7(저), 9.9(중), 10.6(고) 냉소적 시각은 7.7(저), 9.1(중), 9.8(고) 등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웃과의 통합수준이 낮은 집단의 평균값이 가장 높다.

부적절 부모양육과 비행친구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두 변수 모두가 적대적 시각에서는 집단별 평균이 15.2(저), 16.8(중), 17.1(고)와 16.3(저), 16.8(중), 16.6(고)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열악한 상황적 조건에서 적대적 시각의 평균값이 높다. 즉 부모양육의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거나 비행친구가 많으면 이런 상황적 조건의 학생들은 주위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공격적이라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미래편하 시각은 두 변수 모두가, 냉소적 시각은 부적절 부모양육의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모양육과 비행친구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경향이다.

연구문제 2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를 검증하고자 <표 4>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 가해빈도를 교차분석(cross tabulation)한 결과이다²³⁾. 전체적으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강하게 형성하면 학교폭력 가해빈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대적 시각이 강한 집단에서 가해빈도가 많은 경우는 4.8%, 중간 수준에서는 4.2%, 낮은 수준에서는 3.1%이다. 적대적 시각이 강한 학생들 중에서 학교폭력을 많이 저지른 비율이 가장 높다. 냉소적 시각의 결과도 Simons와 Burt의 주장과 일치한다. 학교폭력의 가해빈도가 많은 비율이 6.0%(강한 수준), 3.0%(중간 수준), 4.4%(낮은 수준) 등으로 강한 수준에서 가장 높다. 즉 행위규범을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많이 저지르는 양상이다. 미래편하 시각에서는 가해빈도가 많은 비율이 5.0%(강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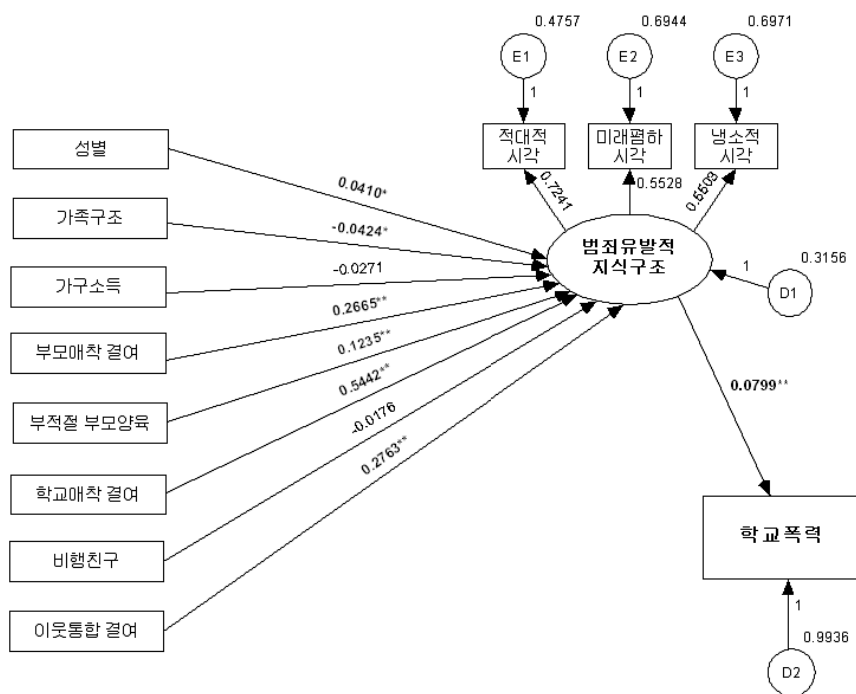
23) 교차분석을 위해 학교폭력 가해빈도는 ‘없음’, ‘보통’, ‘많음’으로 구분했다. ‘없음’은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학생들이다. 학교폭력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저지른 학교폭력 횟수가 상위 50%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음’으로, 하위 50%는 ‘보통’으로 구분했다.

4.3%(중간 수준), 3.4%(낮은 수준)로 미래편하 시각을 강하게 형성한 학생들에서 학교폭력을 많이 저지르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표 4〉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학교폭력과의 관계

학교폭력 가해빈도	적대적 시각			χ^2 검증
	낮은 수준	중간 수준	강한 수준	
없음	547 (88.9)	963 (90.9)	525 (86.8)	12.3 DF=4 P<.05
보통	49 (8.0)	52 (4.9)	51 (8.4)	
많음	19 (3.1)	44 (4.2)	29 (4.8)	
합계	615 (100.0)	1059 (100.0)	605 (100.0)	
학교폭력 가해빈도	미래편하 시각			χ^2 검증
	낮은 수준	중간 수준	강한 수준	
없음	527 (89.3)	857 (89.9)	513 (87.8)	3.6 DF=4 n.s.
보통	43 (7.3)	55 (5.8)	42 (7.2)	
많음	20 (3.4)	41 (4.3)	29 (5.0)	
합계	590 (100.0)	953 (100.0)	584 (100.0)	
학교폭력 가해빈도	냉소적 시각			χ^2 검증
	낮은 수준	중간 수준	강한 수준	
없음	465 (89.1)	1092 (90.6)	478 (86.8)	9.7 DF=4 P<.05
보통	34 (6.5)	78 (6.5)	40 (7.3)	
많음	23 (4.4)	36 (3.0)	33 (6.0)	
합계	522 (100.0)	1206 (100.0)	551 (100.0)	

연구문제 3은 상황적 조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 학교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다. 앞서의 일원변량분석(<표 3>)과 교차분석(<표 4>)을 통해 열악한 상황적 조건이 학생들의 왜곡된 사회적 인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런 사회적 인지들을 형성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많이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앞서의 분석들은 두 변인의 관계에만 집중한 것으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독립적 효과와 변인들간의 인과경로를 보여주지 못한다.



*: $P < .05$

** : $P < .01$

<그림 1>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구조방정식 표준화모형

<그림 1>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²⁴⁾과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개

24) 성별, 가족구조, 보호자 교육수준, 가구소득을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설정했다. 그 중에서 보호자 교육수준은 가구소득과 상관계수가 높아($r=.41$) 분석에서 제외했다.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correlation matrix), 공변량관계(covariance matrix)는 지

별 상황적 조건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과 이런 지식구조로 인해 학교폭력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²⁵⁾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모형의 적합도는 GFI가 .97, SRMSR이 .05, CFI가 .90 등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들에(Kline, 2011: 195-210) 부합했다.

<그림 1>에서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는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에 반영되는 잠재변인(latent variable)이다. 요인적재치들은 적대적 시각이 .7245, 미래편하 시각은 .5528, 냉소적 시각은 .5503으로 적대적 시각의 요인적재치가 가장 높다. 즉 적대적 시각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영지표(reflective indicator)이다.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에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 등이 잠재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 결여가 심할수록($\beta=.2665$)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내면화하는 경향이다. 즉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적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장래보다는 즉각적 만족에 집착하고, 사회규범을 경시하며 상황을 정의하는 경향이다. 부모양육이 강압적이고 비일관적일수록($\beta=.1235$)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내면화하는 경향이며, 학교에 대한 애착이 부족할수록($\beta=.5442$) 그리고 이웃과의 통합수준이 낮을수록($\beta=.2665$) 적대적이고 미래편하적이고 냉소적 시각으로 상황을 정의하는 경향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내면화하는데 있어 열악한 상황적 조건들이 중요한 인과요인이라는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행친구는($\beta=-.0176$)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 인지를 형성에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⁶⁾.

면의 제한으로 인해 생략한다.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교신저자(stallman@deu.ac.kr)가 제공한다.

- 25)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은 SAS 통계패키지의 CALIS(Covariance Analysis and Linear Structural Equations) 프로시저를 활용했다. CALIS 프로시저 이외에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Amos, EQS, LISREL, Mplus, Mx, RAMONA, SEPATH 등이 있다(Kline, 2011: 75-88).
- 26) 청소년비행 연구에서 비행친구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판별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별도의 분석에서 비행친구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토했다. 이 때는 기존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비행친구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의 값도 다른 상황적 조건들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런 분석결과들은 학생들의 사회적 인지를 형성에 비행친구는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대신에 직접영향 즉 비행친구들부터의 유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을 토대로 한 기존연구들과 일치한다.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수준이 높을수록($\beta=.0799$) 학교폭력을 많이 저지르는 경향이다. <그림 1>의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의 발생실상을 요약하면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와 같은 열악한 상황적 조건에서의 경험으로 문제학생들은 적대적 시각, 미래편하 시각, 냉소적 시각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고 이런 지식구조로 인해 주위상황을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V. 결론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 문제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국가적 노력이 집중되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는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지금까지의 연구들과 예방대책들이 실증주의에 경도되었고 청소년의 주관적 사고작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과 현상학에 관한 이론분석으로 주관적 사고능력이 형성되는 배경과 주위대상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며, 관련연구들을 통해 학교폭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위상황을 왜곡된 방향으로 정의하는데 작용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특성을 파악했다. 문헌검토에 기반해 연구문제들을 구체화했으며 이후 우리나라 학생들에 있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상황적 조건들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다음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조사대상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비율은 10.7%이었다. 가장 많이 가담한 학교폭력은 심한 놀림과 조롱이었고, 다음으로 집단따돌림(왕따)과 심하게

때리기의 순이었다. 돈 혹은 물건을 뺏기와 훔치기는 1.5%와 0.7% 수준으로 우리나라 학교폭력은 재물추구형보다는 심리적 만족감의 추구가 일반적 양상이었다. 이런 학교폭력의 가해빈도는 사회적 인지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적대적 시각의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많이 저질렀으며, 사회규범을 냉소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역시 학교폭력의 가해빈도가 많았다. 미래편하 시각의 학생들도 학교폭력을 많이 저질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상황적 조건에 의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사회적 인지들로 인해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즉 부모애착 결여, 부적절 부모양육, 학교애착 결여, 이웃통합 결여와 같은 열악한 상황적 경험으로 주위사람들을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보다는 즉각적 만족에 치중하고, 행위규범을 경시하는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인지들로 인해 청소년비행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왜곡해 해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경향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완해야 할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성찰적 자아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검토했던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려면 성찰적 자아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사회적 경험들이 축적됨으로써 발달한다(Mead, 1962; Blumer, 1969).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학생들의 성찰적 자아능력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방법론으로는 주입식 도덕수업이 아니라 사람들과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가담학생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를 통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가 학교폭력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을 나쁘게 보지 않고 상황을 왜곡해 해석하는 사회적 인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에도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가 있지만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와 행동을 인지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감정

을 이해하며, 자신의 인지적 왜곡에 대해 알고 이를 없애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Houston, Wrench, and Hosking,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사회적 인지들은 상황적 조건에 의해 즉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의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에 집중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적 상호작용 즉 주변 사람들이 동참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Giordano와 동료들은(2002) 잘못 형성된 인지들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범죄자들의 잘못 형성된 인지들은 변화유인제(hooks for change)가 있을 때에 변화되었다. 즉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인지지침(clear cognitive blueprint)을 제시하고, 현재의 자기모습과 다른 대치자아(replacement self)의 모습을 상세히 제시하고, 대상자의 관심을 미래지향적으로 유도하고, 긍정적 자극과 연계하고, 친사회적 구성원들과의 접근통로를 활성화하는 등의 주위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을 때에 사물들에 대한 의미부여 방식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담학생의 범죄유발적 지식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인지지침, 대치자아의 제시, 긍정적 자극, 미래지향적 관심유도, 친사회적 구성원들과의 접근통로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보적 법집행의 자제가 필요하다. 앞서 검토했던 Schutz(1967)와 Schur(1984)에 의하면 사람들은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문화적으로 존재하는 행동 방식, 문제해결책, 사회세계의 이해방법 등을 배우고 사회적 인지들을 구성한다. 형사사법기관의 강력한 응보적 법집행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형성하고 이런 문화적 일반유형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위학생과 교사들을 믿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특히 적대적 시각이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가장 밀접하다는 연구결과를(factor loading: .7245) 고려할 때에, 장기간의 사회격리와 도덕적 비난에 의존하는 응보적 법집행을 자제하고 대신에 피해자와의 화해, 가해자의 재합과 재통합을 추구하는 회복적 사법이 적극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제7차(2011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10). 2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5개년 기본계획.
- 국무총리실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도자료.
-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2011). 형사정책 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세정 (1998).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책으로써의 학교-경찰연계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7, 216-258.
- 박철현 (2010). 사회문제론. 박영사.
- 법무부 (2007). 소년법(법률 제11005호)
- 법무연수원 (2012). 범죄백서.
- 스티븐 랩 (2011). 범죄예방론. 이순래, 박철현, 김상원(공역). 도서출판 그린.
- 이경상, 이순래, 박철현 (2012).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순래 (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순래 (2005).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한국범죄방지재단 발표원고.
- 이순래 (2008).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성격과 형사정책의 발전방향. 형사정책연구, 19(4), 1-28
- 조지 리처 (2001). 현대사회학이론. 최재현(역). 형설출판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 최상근 (2011). Wee프로젝트 추진과 전망. 교육개발, 38(2), 28-3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 1~2차년도 User's Guide.
- Akers, Ronald L. (1998). Social Learning and Social Structure: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Deviance. Boston, MA: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Bandura, Albert. (2006). 'Toward a psychology of human agency'. Perspectives

- on Psychological Science 1: 164-180.
- Becker, H. (1963). *Outsiders*. New York: The Free Press of Glencoe.
- Blumer, Herbert. (1969). *Symbolic Interactionism: Perspective and Metho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ourdieu, Pierre. (1990). *The Logic of Practic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icourel, Aaron V. (1968). *The Social Organization of Juvenile Justice*. New York: Wiley.
- Emerson, Robert M. (1969). *Judging Delinquents*. Chicago: Aldine.
- Giordano, Peggy C., Stephen A. Cernkovich, and Jennifer L. Rudolph. (2002).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990-1064.
- Gottfredson, Michael R., and Travis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iffin, Emory A. (2006). *A First Look at Communication Theory*. Boston: McGraw-Hill.
- Hatcher, Larry. (1994). *A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the SAS System for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AS Publishing.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ouston J. M. Wrench, and N. Hosking. 1995. 'Group processes in the treatment of child sex offenders'.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6: 359-368.
- Johnson, Doyle Paul. (1981). *Sociological Theory: Classical Founders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Kline, B. Rex. (2011).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Kroneberg, Clemens, Isolde Heintze, and Guido Mehlkop. (2010). 'The interplay of moral norms and instrumental incentives in crime causation'. *Criminology* 48(1): 259-294.
- Lemert, E.M. (1967). *Human deviance, Social Problems, and Social Control*

-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Mead, George Herbert, (1962). *Mind, Self, &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isenhelder, Thomas. (2006). 'From character to habitus in sociology'. *Social Science Journal* 43: 55-66.
- Reynolds, Larry T. & Nancy J. Herman-Kinney. (2003). *Handbook of Symbolic Interactionism*. Altamira Press.
- Scheff, Thoma J. (1966). *Being Mentally Ill*. Chicago: Aldine.
- Schur, Edwin M. (1984). *Labelling Women Deviant*. New York: Random House.
- Schutz, Alfred. (1967). *The Phenomenology of Social World*. translated by George Walsh and Frederick Lehnert. Evanston, IL: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 Simons, Ronald & C. H. Burt. (2011). 'Learning to be bad: Adverse social conditions, social schemas, and crime'. *Criminology* 49(2): 553-598.
- Sudnow, David. (1965). 'Normal crimes'. *Social Problems* 12(Winter): 255-276.
- Thomas, William I. (1923). *The Unadjusted Girl*. Boston: Little, Brown.
- Vaughan, Karen & Josie Roberts. (2007). 'Developing a 'productive' account of young people's transition perspective'. *Journal of Education and Work* 20(2): 91-105.
- Wilkström, Per-Olof H. & K. Treiber. (2007). 'The role of self-control in crime causation: Beyond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Crime'.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4: 237-264.
- Wilkström, Per-Olof H. & R. Svensson. (2010). 'When does self-control matter? The interaction between morality and self-control in crime causation'.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7: 395-4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and School Violence

Lee, Soon-Rae* · Lee, Kyeong-Sang** · Park, Cheol-Hyun***

Various national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deal with school violence. Despite such national efforts, violence problems at school surroundings do not decrease. An annual evaluation study shows that the problems have been worse in recent years. This study is conducted to develop the better national prevention policies.

The lack of concerns for subjective meanings in students is argued as the major cause of failure in current policies.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which is consisted of hostile social schema, discounting social schema, and cynical social schema, is hypothesized to affect the subjective meanings and school violence. Research questions are examined on the data from Korea Child Youth Panel Study 2010.

The findings show that approximately 10.7% of respondents committed at least one of seven kinds in school violence. Serious taunting or bantering was the most prevalent while exploitation and stealing were the least prevalent. Negative circumstances such as lack of parental attachment, inappropriate child rearing, lack of educational commitment, and lack of neighborhood integration were strongly related to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The hypothesized path that negative circumstances would affect the knowledge structure, and thus created

* Professor, College of Police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Ph.D. in Criminology

*** Senior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Ph.D. in Liberal Art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Dong-Eui University, Ph.D. in Liberal Arts

knowledge structure would cause school violence was supported in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ree prevention policies are recommended. First, programs for social interaction are to be implemented for enhancing the reflexive capability of students. Second, programs for hooks for change are to be developed for changing the ill-formed social schemas. Finally, restorative justice is to be extensively adopted to reduce the hostile cultural typifications in retributive justice.

❖ Key words : School violence, Criminogenic knowledge structure, Social schema, Situational definiti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policy